

“6점 쏜고 정신 차렸다…이번 금이 가장 무겁고 값져”

올림픽 3연패 세계사적 새 역사 쓴 진중오

극적인 역전극으로 50m 권총 우승을 차지한 진중오는 “6점을 쏜고 정신 차렸다”며 아찔한 순간을 떠올렸다.

진중오는 11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사격 센터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에서 193.7점을 기록,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9번째 격발에서 6.6을 쏘았다. 메달권에서 멀어질 위기였다. 하지만 진중오는 막판 대역전에 성공하며 올림픽 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긴장하지는 않았는데 오조준한 상태에서 격발했다”고 당시 실수를 떠올린 진중오는 “잠시 자책을 하다가 ‘진중오다운 경기를 하자’고 마음먹고 다시 사대에 섰다”고 말했다.

진중오는 7일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5위에 그쳤다. ‘사격 황제’의 자존심을 구긴 순간이었다.

50m 권총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난 뒤 진중오는 “그때 5위를 하고 다 내려놔야. 10m 경기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렸다. 뭔가 보여주려는 경기를 하다 보니 ‘진중오다운 경기’를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주 종목인 50m 권총을 앞두고 진중오는 가슴을 억누르는 무언가를 내려놔고, 경

금4·은2 올림픽 메달 6개 최다메달 김수녕과 타이기록

“후배들에 미안하지만 은퇴할 생각 아직은 없어”

기 중에는 아찔한 순간을 통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리고 더 큰 목표를 향해 과녁을 조준했다.

진중오는 “3위까지 올라갔을 때 ‘동메달은 따졌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예전 기억을 돌아보니 ‘3등은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꼭 3등만 하더라. 그래서 더 집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진중오는 마지막 한 발까지 집중했다. 그리고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

진중오는 “올림픽 3연패를 했지만, 이번 리우에서 탄 금메달이 가장 무겁고 값지다”고 운을 떼며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운 올림픽이었다. 주위의 기대가 감사하면서도 큰 부담이 됐다”고 했다. 극심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올림픽 3연패를 달성

한 진중오는 “(훈련하느라) 가족과 떨어져 외지 생활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며 “일단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은퇴를 떠올린 적은 없다.

진중오는 “후배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 은퇴할 생각은 없다”며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말씀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 나는 정말 사격을 사랑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고 싶다. 은퇴하라는 건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격을 빼앗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진중오는 이번 50m 권총 우승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전설’로 떠올랐다.

그는 우리나라가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처음 참가한 이후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거는 위업을 달성했다. 3회 연속 우승을 이룬 선수는 진중오가 최하다.

진중오가 이날까지 수확한 올림픽 메달은 모두 6개(금4·은2). 한국 양궁의 레전드인 김수녕(금4·은1·동1)이 보유한 올림픽 최다 메달(6개)과 타이기록을 세웠다.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도 동시에 이뤘다.

또 진중오는 사격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총목 3연패를 이루며 세계 사격 역사에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연합뉴스



한국의 진중오 선수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데오도로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 결선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박상순 감독과 포옹하고 있다. 동메달을 딴 북한의 김성국이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진중오가 베이징, 런던 올림픽에서 받은 메달. /연합뉴스

금 못지않게 소중한 동

김정환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전 사상 첫 메달

한국 펜싱 사브르에서 사상 첫 올림픽 남자 개인전 메달을 따낸 김정환(33·국민체육진흥공단)은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관중석이 아닌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김정환은 11일 2016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란의 모이타바 아베디니(32)를 15-8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서 개인전 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펜싱이 올림픽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따낸 메달이다.

경기 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만난 김정환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을 묻자 아버지를 꼽았다.

과도할 정도로 보이는 세러모니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됐을 때 아버지가 2012년 런던 대회에 나가면 된다고 위로하시다가 2009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하늘을 봤다”고 울음을 삼키며 말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김정환은 “욕심을 버리면 메달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연습처럼 한 것이 주효했다”고 했다.

김정환은 이번 동메달의 의미를 ‘사막



김정환이 동메달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

의 오아시스’라고 정의했다. 그만큼 리우 대회를 준비하면서 잃은 것이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런던 단체전 금메달보다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이번 동메달이 더 소중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다시 힘받는 ‘올림픽 톱10’

한국 잇단 ‘깜짝 메달’로 ‘10-10’ 목표 ‘탄력’

금메달 기대주들의 잇따른 탈락으로 경도등이 들어온 ‘올림픽 톱10’ 목표가 예상치 못한 ‘깜짝 금메달’로 다시 탄력이 불고 있다.

2016 리우 올림픽에 나선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10개 이상의 금메달로 총합 10위 이내의 성적을 달성한다는 ‘10-10’이었다. 초반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한 ‘10-10’ 계획은 지난 9일 개막 사용째 ‘노메달’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았다.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기대를 받던 선수들이 줄줄이 초반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9일에만 기대했던 금메달이 최소 3개 이상 날아갔다.

무엇보다 남자유도 73kg급 세계랭킹 1위 안창림(수원시청)과 남자 양궁 세계랭킹 1위 김우진(청주시청)의 금빛 도전 실패는 아쉬움을 남겼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김지연도 16강에서 무너졌다.

침울해진 선수단에 ‘박사사랑’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난 10일이다.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대학생 겸객’ 박상영(한국체대)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기어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상영의 금메달은 선수단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선물’이었다.

‘박상영 효과’ 때문일까. 한국 선수단은 11일 이를 연속 금메달 낭보를 들었다. 사격 황제 진중오(37·KT)는 역전극을 펼치며 50m 권총 결선에서 대회신기록인 193.7점을 쏴 1위를 차지하고 한국 선수단에 네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남자 유도 90kg급 광동한(하이원)과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메달을 보태고, 남자 축구가 ‘디펜딩 챔피언’ 멕시코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등 메달 레이스에 탄력을 줬다.

한국에 아직 메달밭이 널려있다. 당장 12~13일은 세계 최강 남녀 양궁 대표팀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쏠아 낼 태세다. 레슬링, 태권도 등 전통의 ‘금빛 효자’들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1위…아쉬운 동

유도 90kg급 광동한, 3~4위전 마르쿠스 제압

유도 광동한(하이원)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에도 답답한 모습이었다.

세계랭킹 1위인 광동한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 2에서 열린 대회 유도 남자부 90kg급 준결승에서 바르람 리파르텔리아니(조지아·랭킹 5위)에게 패했지만 이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웨덴의 마르쿠스 니만(랭킹 4위)을 제압했다.

이로써 광동한은 처음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아쉽게 금메달 도전에 실패했지만, 동메달을 위안으로 삼게 됐다.

2경기 연속 한판승으로 8강에 진출한 광동한은 8강전에서 만난 맘마달리 메흐디예프(아제르바이잔·랭킹 24위)에게 지도를 4개 빼앗고 반칙승으로 준결승에 나섰다. 하지만 광동한은 준결승에서 바르람 리파르텔리아니(조지아·랭킹 5위)에게 허벅다리후리기 절반 두 개를 잇달아 내주고 한판으로 패했다.

광동한은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준결승에서 졌을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했으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겨서 (안정훈) 좀 되찾았다”고 말했다. “몸 상태는 좋았다. 잘 될 거라 생각하



동메달을 목에 건 광동한.

고 경기에 임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다”고 아쉬움을 표한 광동한은 그러나 “준결승 패배 후 마음을 잘 가다듬고 준비해서 3등을 할 수 있었다. 동메달을 따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음식비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태+애호박전	4k	96,000
	육계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쇠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괴고추멸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북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코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되)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되)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꿀떡/절편	6k(3되)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씻기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생삼겹(국내)씻기	5k	190,000			
장례용품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0.6오동관	1개	200,000	적출물및음식물처리비용	2회	100,000	향/원장(세트)	1개	5,000
	수리(화장)	1벌	200,000	수세복	1벌	30,000	매배	1회	150,000
	초령비	1회	100,000	액자리본(고급)	1개	5,000	임관용품	세트	150,000
	안치실	1회	100,000	향위패	1개	20,000	양초(대)	1개	10,000
	염습비	1회	300,000	발인세트	세트	80,000	여상복	1벌	18,000
	염실일대료	상조	250,000	부위록	1권	15,000	넥타이	1개	3,000

주류·음료 소주 1,500 / 맥주 1,600 / 콜라, 사이타 700

맛과 품질과 중량을 반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

정직한 장례비용을
대물림 하겠습니까?

